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. 31.(수) 23:00 배포 2024. 1. 31.(수)

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공급망 협정(필라2)이 2월 24일 미국,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, 현재 일본('23.11.29), 미국(1.5), 싱가포르(1.12), 피지(1.24), 인도(1.25)가 비준서를 기탁했다.

* **IPEF 개요**

ㅇ **명칭** :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)

ㅇ **참여국** : 한국, 미국, 일본, 싱가포르, 호주, 뉴질랜드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피지 등 인태지역 14개국

ㅇ **분야** : 필라1(무역), 필라2(공급망), 필라3(청정경제), 필라4(공정경제)

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, 미국,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, 11월 서명까지 마쳤다. 또한,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,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「위기대응 네트워크」를 운영하는 한편,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, 물류개선, 공동 연구개발(R&D)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,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.

한국의 경우,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,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,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.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하여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하여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이경 (02-2100-1370)
		담당자	사무관	노정림 (02-2100-137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